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3일 오전 11시 도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2대 대한건설협회 도회 임원 연석회의를 주재.

1조원대 제2경춘국도 공사 지역업체 참여 절실

국가기관 발주로 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적용 안돼
도내업체 “국가계약법상 보호 제도 최대한 활용” 입장

군 대형건설사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져 별도의 대책이 없으면 사업수주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지난해 공사계약 중 5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는 67.5%, 전문건설업체의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전체의 57.7%에 달한다.

는 입장이다. 공동도급과 함께 공구분할로 입찰이 이뤄지면 춘천 구간 또는 춘천·가평 복합구간의 지역업체 참여는 가능하다.

로 행정기관, 정치권 등에 건의하고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현재 강원도는 평창동계 올림픽 특수 이후 정부의 SOC 투자 감축 기조 및 민간사업 감소에 따라 건설경기 위축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위해 국가 주도 대규모 건설사업에 도내 업체 참여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도내 업체들은 지역의무공동도급 활용, 공구분할 및 분할발주 등의 국가계약법상 보호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의 여타면제 선정이 국가 균형발전이 목표인 만큼 도내 업체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제2경춘국도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앞으

하위문기자 hwy@kwnews.co.kr

【춘천】1조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만 남양주~춘천 간 32.9km 구간 건설에 보상비를 포함한 실제 사업비는 1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된 제2경춘국도는 현재 실시설계 착수를 앞두고 있다. 당초 예상사업비는 8,613억원으로 책정됐지

그러나 제2경춘국도 건설은 국가기관 발주로 입찰이 진행될 예정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 등을 적용할 수 없다. 대부분의 지역 업체들은 전국구 1

56개 사업 국비 1조1천억 확보 사활

원주시 중앙방문 총력전
1군지사 이전비 등 요청

과 당의성을 설명하는 한편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브리핑하는 등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국책사업과 정부공동사업, 생활밀착형 SOC사업, 주요핵심사업 등 총 56개 사업으로 목표액은 1조1,370억 원이다.

【원주】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원주시가 지역 내 주요 현안 해결에 필요한 국비 1조1,000억원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사업별로는 1군지사와 원주교도소 이전 각각 3,151억원을 비롯해 국도 5호선 신림~관부 구간 864억원, 국지도 88호선 지정~흥업 구간 도로 건설 676

억원, 원주천 댐 건설 689억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조성 288억원, 근대역사문화공간재생 활성화 확산사업 250억원 등이다.

이 밖에 봉산동(167억원), 중앙동(250억원), 우산동(167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태장동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 166억원,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창업지원 허브 건립 100억원도 포함돼 있다.

시는 중앙부처 등과 협의해

최대한 예산심사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정부예산안에 지역 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김광수 부시장은 “원주시의 역점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우기자 woolee@kwnews.co.kr